

詩가 꽃피는 강진, 예술의 향기로 물들인다

강진 시문학파기념관 2주년, 16일까지 공연·학술·전시

정태춘·박은옥 축하공연

전남대와 공동 콜로키움 개최

'봄이 오는 소리'전 등 다채

김영랑 시인의 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가 떠오르는 계절이다.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은 봄날, 강진에서 시와 음악 그리고 미술이 어우러지는 문화의 향연이 펼쳐진다.

개관 2주년을 맞는 강진 시문학파기념관이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시와 노래 그리고 학술, 봄의 앙상블' 주제로 축하 공연, 학술, 전시를 개최한다.

한국문화사상 최초의 문파(文派) 문학관인 강진 시문학파기념관은 순수문학의 모태가 되었던 시문학파의 문학적 의의를 계승하기 위해 2012년 3월 5일 강진에 건립되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한국문화관광협회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시문학의 모태인 강진 고을을 예술의 향기로 물들일 예정이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중에서〉



정태춘·박은옥 씨 부부가 4일 오후 8시 강진아트홀에서 시문학파기념관 2주년 축하공연을 한다.

'모란동백' '영랑과 강진' 등을 들려준다.

3월 5일에는 아트홀 소공연장(오후 3시)에서 시문학파의 문학적 의의와 그들의 문학 세계를 조명하는 학술행사가 예정돼 있다. 평론가인 한양대 국문과 유성호 교수가 '시문학'의 문학적 위상과 가치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7일에는 세미나실(오전 10시30분~오후 6시)에서 전남대와 시문학파기념관이 "60년대식" 문학감각과 제3세계적 현실 인식"을 주제로 공동 콜로키움을 연다.

임환모 전남대 국문과 교수가 '1960년대 한국문학, 왜 중요한가'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송병삼 박사 '서사문학의 지형도', 전동진 박사 '시문학의 지형도', 최창근 박사 '비평담론의 지형도'가 이어진다.

시와 미술을 결합한 전시 '봄이 오는 소리'도 눈길을 끈다. 2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아트홀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에는 강진을 대상으로 쓴 시에 강진과 인근 지역 출신 작가

15명이 각기 하나의 시를 시작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로 구성됐다.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이남이 '모란 바나스'로, 고재중 시인의 '백련사 동백 숲 길에서'는 황홍배 화가가 동일한 제목으로 출품했다. 김현구 시인의 '님이며 강물이 몹시도 퍼렇습니다'는 윤세영 화가가 '파랑 가막섬' 등으로 형상화했다.

이밖에도 '시문학파'의 대표 시인 '깃발전'이 기념관 야외무대(~16일)에서 열리고 '화요일 밤의 초대 손님' 추억전도 같은 장소(~16일)에서 개최된다.

한편 시문학파는 1930년 '시문학'을 중심으로 순수시 운동을 주도하였던 일련의 시인그룹을 말한다. 김영랑, 박용철, 정지용, 이하운, 정인보, 변영로, 김현구, 신석정, 허보 등 9인의 대표 시인들로, 이들은 서정적 기교와 전통적인 가락을 통해 순수시의 새 경지를 개척했다. 문의 061-430-3972.

/박성천기자 kkwangju@kwangju.co.kr

春梅茶話



'백매(白梅)'

직현 허달재 초대전
6~22일 제희갤러리

광주시 북구 중의공원에는 봄의 전령인 홍매가 꽃망울을 터트렸다. 고혹적인 매화향이 발길을 사로잡는 봄이 성큼 다가왔다. 갤러리에도 봄 향기가 가득하다. 잠시 들러 화폭에 피어난 봄꽃과 차 한잔을 즐기는 것 만큼 이른 봄을 만끽하는 좋은 방법이 또 있을까.

제희갤러리는 6~22일 한국화가 직현(直軒) 허달재 의재문화재단 이사장을 초대해 올해 첫 전시로 '춘매다화(春梅茶話)-봄과 꽃, 그리고 차와 이야기'전을 연다.

허 이사장은 봄날의 안온한 정취가 한지 위에 곱게 채색된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때로는 하얗게, 때로는 붉게 만개해 강인한 생명력을 풍기는 매화꽃이 여백의 울림 속에서 향을 내뿜는다.

우아한 붓질로 몽계몽계 피어난 꽃잎들과 더불어 여백 속에서 풍기는 진중한 사색의 흔적이 보는 이들의 마음에 잔잔한 서정을 선사하는 작품들이다.

의재 허백련의 장손이자 제자인 그는 전통에 대한 정신과 강건한 필력, 그리고 동양화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독특한 화풍을 완성했다. 특히 작가가 수십 년간 화폭에 담은 매화에는 엄한(嚴寒)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 땅 위에 아름답게 꽃과 향기를 피워내는 작가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문의 062-222-930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황홍배 작 '이른 봄 백련사의 동백숲'

가야금 연주 듣는 클래식·OST

'목요일리국악한마당' 광주가야금연주단 초청 6일 공연

가야금으로 듣는 클래식과 영화음악. 광주시 서구청이 주최하는 '목요일리국악한마당'이 광주가야금연주단(단장 송영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수석)을 초청했다. 6일 오후 7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광주가야금연주단은 '동서양을 거닐다'를 주제로 '티파니에서 아침을' 삽입곡인 'Moon

river'를 25현 가야금 2중주로 들려주며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삽입곡 'Under the sea'를 25현가야금 4중주로 연주한다.

또 피아졸라의 대표곡 '리베르 탱고'와 비블즈의 노래 'Let it be', 'Ob-La-Di-Ob-La-Da'를 들려주며 '강원도 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을 엮어 만든 '아리랑 놀이'와



거리장단의 흥겨운 경상도 민요 '뱃노래2중주', 경기민요 '오봉산타령'을 들려준다. '노팅힐'의 주제곡 'She', 애니메이션 '엘마' OST 'Silhouette of a breeze'는 5대의 가야금과 양금, 타악 연주로 선사한다.

지난 1989년 창단한 광주가야금연주단은 성예순 전남대 교수가 초대 단장을 맡았다. 전석 무료.

문의 062-350-4556.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세상을 밝혀줄 미소, 어디 없나요?
바라봐 줄 미소, 어디 없나요?
미소, 어디 없나요?
미소, 어디 없나요?

유·스퀘어문화관 사진공모전
시민 대상 24일까지 접수

유·스퀘어문화관은 24일까지 '세상을 밝혀줄 미소, 어디 없나요?'를 주제로 '제3회 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사진도 자유롭게 접수가 가능하다.

유·스퀘어문화관은 공모를 통해 최우수 2점, 우수작 4점, 장려작 6점, 참가작 14점 등 모두 26점을 선정, 입상자들에게는 문화상품권과 뮤지컬 '답배가게 아가씨' 초대권, CGV 영화 관람권 등을 수여한다.

공모전 입상자들은 시민 전시 공간 2층 유·테라스 야외갤러리에 전시할 예정이다.

작품은 개인당 5점까지 응모 가능하며, 디지털 이미지 형식의 파일(JPG, JPEG)만 제출할 수 있다. 문의 062-360-843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매매"

15평(실 9평) 1세대

- 12층, 무등산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감정가 4,500만원
- 급매가 3,500만원

38평(실 22평) 1세대

- 2층, 하천 쪽, 사무실 전용
- 시세/감정가 1억 5,000만원
- 급매가 1억원

77평(실 46평) 1세대

- 20층, 최상층, 전망 좋음, 사무실 전용, 올수리
- 시세/분양가 3억원
- 급매가 2억 5,000만원

29평(실 18평) 1세대

- 10층, 하천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분양가 1억원
- 급매가 6,500만원

53평(실 33평) 2세대

- 13,19층, 양동/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주거 겸 사무실, 올수리
- 시세/분양가 2억원
- 급매가 1억 5000만원(13층) 1억2000만원(19층)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문의 010-4667-9300

- 관리비 평당 7,000원, 대형주차장 완비
- 개별 냉/난방 시설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 단독/공동투자 하실 분!
- ▶ 경매 낙찰 물건에 돈 빌려 주실 분!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 ▶ 특수물건만 취급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